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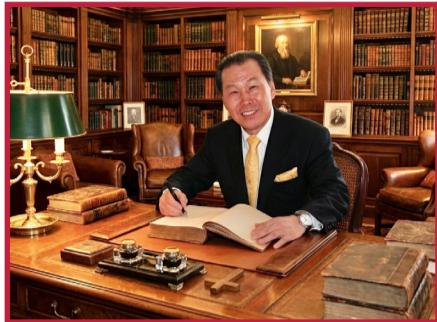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월 18일 (제 1341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통 우 컬 럼

안에서 박수를 받아야지

내가 해외집회를 마치기가 무섭게 귀국하는 것을 두고, 장로들이 '좀 쉬었다 오시지, 왜 그러시냐?' 한다.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빠빠한 스케줄이 무리인 것은 사실이나 내가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는 이유는 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내가 해외집회에만 전념하다가 우리 성도들 돌보는 것에 소홀하다면 어찌 될까?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한 법인데 말이다.

예전에 한 꿈을 꾸었다. 대홍수가 나서 양떼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저들을 건져내라."는 음성이 크게 들렸다. 나는 급히 "주님, 내 양떼는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저쪽을 봐라." 하셔서 보니, 목자들이 내 양떼를 푸른 초장에서 배부르게 먹이며 잘 돌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교회 담임을 비롯한 지교회의 목사들에게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어느 부흥사는 교회는 뒷전에 두고 부흥회만 나가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았고,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걸프전에 승리하여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으나, 국내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내정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던가. 나는 주례를 할 때면 꼭 이 말을 한다.

"밖에서 박수받으려 하지 말고, 집 안에서 박수를 받아야지."

내 집의 서까래는 썩어가는데, 내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내 기업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밖으로만 나돌며 박수를 받는다면 말이 되나? 자고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다.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다음 가정을 돌본 후에 천하를 평정해야 하는 법, 우선은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야 한다. 성경도 말씀하신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전3:5).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대외적인 일을 하겠냐 하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땅, 내 가정, 내 교회, 내 회사에 관심을 갖고, 그곳이 기름지도록 정성껏 가꿔보자. 밖에서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안에서 박수 받는 자가 되자.

먼저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보자'는 새해 슬로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옥토(沃土)가 돼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네 마음 밭의 자갈을 골라내고, 쓴 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온유해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하는 말씀이 다 내 마음을 넓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옥토, 좋은 땅이라 함은 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땅이라 하셨으니까요(눅8:15).

목사님은 송구영신예배, 첫 주일예배, 첫 수요예배, 그리고 둘째 주일예배를 통해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

지나오는 과정에 오해도 받고, 펑박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를 닦고, 또 닦고, 다듬었더니 그 빛이 전 세계에 밝혀져 오늘날 75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간증하십니다. '나를 본받기 바란다, 내 믿음을 닮아라'하는 말씀이 거저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오셨기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를 생각해보세요. 충신의 아내 뱃세바를 범한 후, 이를 덮으려고 갖은 술수를 부리다 못해 이것도 저것

들, 곧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들을 만나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따지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죄짓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셨습니다. 나 또한 과거의 죄를 묻는다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희열의 찬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에(롬8:2)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어떠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까,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것을 알기에 이제 또 오는 3월, 미



베네수엘라 만 여명의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2010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 광경

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지금까지 혹 그렇지 못했다 해서 좌절, 낙담하지 말고, 과거를 거울은 삼되 그 과거의 잘못에 짓눌려 과거의 노예는 되지 말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것(고전5:17)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진 옥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스스로 '나는 예전에 마음에 쓴 뿌리가 가득했던 사람이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며 헐기가 가득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내 마음의 자갈을 골라내고 쓴 뿌리를 제거하며 닦고 기름치고 조였더니 오늘의 복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목회 41년을

도 안 되니까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는 인륜적으로도 천인공노할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비록 그가 뿌린 씨앗은 거둬야 했지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과거를 거울삼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왕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추워하자 신하들이 넣어준 아리따운 동녀와 동침치 아니했지요(왕상1:1~4).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아무리 주약한 죄를 지었어도, 간음한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았던 예수님, 여섯 남자와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조차 과거를 묻지 않으셨지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장기와 세리

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서 미국 전역의 중남미 목회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5월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장소를 알아보라 지시했습니다. 6월에는 또 멕시코(Mexico) 바스코(Tabasco)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면 서울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인전하고 넉넉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충성되게 가시는 길을 본받아, 올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옥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은택 목사

2026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28일(수)
* 대상 :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2:9~21)

선(善)을 악(惡)으로 갚지 말라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일 듯 교회가 부흥하자 기성 교단과 기독교 언론으로부터 모함과 팝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짜니, 살인자니, 사기꾼이니, 이단 아니 하며 저와 우리 교단을 난도질했습니다. 정말 부아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나도 신문사나 하나 차려 맞대 응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억울한 마음에 평평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는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먹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 내가 당한 것들이 억울해서 울고, 악에 그대로 대항 하려던 내가 부끄러워 회개하느라 울고… ‘선한 목자’라는 찬송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사람이 문제가 생겨 궁지에 몰리자 그만 믿음의 어머니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발뺌을 하는 통에 어머니께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에게 신세를 아주 많이 진 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모 저모로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진실을 밝히면 되지, 왜 고통을 당하시느냐?’고 속상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목사, 그 사람이 살겠다고 나를 밟은 것인데 나마저 살아보겠다고 그 사람을 밟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믿음의 어머니는 선을 악으로 갚은 자까지도 용서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 12:17~18).

만인에게 좋은 것을 주자
인생사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디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양 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약탈자에게서도 보호해주었습니다. 나발의 가족과 종들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삼상25:16). 디윗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디윗은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 최소한의 호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아주 냉혹했습니다. “디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던데, 그도 그런 자가 아니더냐? 그런 자에게 내가 왜 주냐?”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것입니다. 디윗이 그때 화가 치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삼상25:21).

분노한 디윗
은 군사를
이끌고
나
발

을
치 러
갑니다.
그런데 도
중에 나발의 아
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운 중재로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디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아비가일을 통해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 후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한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삼상25:37~38). 사울도 그랬습니다. 디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수금을 타 악신을 쫓아주었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양잡아 볼 때 골리앗을 물리쳐주었습니다. 사울도 디윗이 은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사위까지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위를 업고 디윗도 시원찮을 판에 디윗을 시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립받아 왕권을 빼앗겼고, 자식과 함께 죽음을 맞아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17:13).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들이 있습

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돈 몇 푼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팔려간 곳에서도 묵묵히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할 명분도, 또 그려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

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45:8).

세월이 흘러
아 버 지
야 곱
이
죽

자
혹
시 라
도 요셉이
악을 갚겠다
할까 봐 형제들이
불안해할 때, 요셉은 다

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창50:19~21). 요셉은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덮었습니다. 또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받은 축복을 볼까요? 그는 애굽의 총리대신의 지위로 그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디윗은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원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며 보란 듯이 칼을 뽑아 들었겠지만, 디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

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삼상24:6). 그런 그가 받은 축복은 너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21).

가시나무 씨를 심고
포도를 거두겠는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마5:44).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고(롬12:20),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우기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는 것이고,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 아직 부족합니다(마5:39~41). 팝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입니다(마5:44).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을 앞에 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쪽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때론 선의 경계가 애매할 때도 있는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파는 제자를 끝까지 건지려 하셨고, 배신한 제자도 품으셨으며,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눅23:34). ‘그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혹 그들이 잘못되어 어려움에 처하면 돋게 되고, 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억울해서 내 속이 터져버릴 거예요.” 하시는 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발을 누가 쳤습니까? 디윗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삼상25:38). 사울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12:19)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것 없이 선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인의 소행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능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부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주식을 팔아야 할 때와 팔지 말아야 할 때

장기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투자자는 자신의 최초 투자논리의 타당성을 계속 확인해야 하지요. 주제가 반전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동안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면, 변화하는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점점 잘 알게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률이 영구적으로 둔화될 때, 혹은 자신의 최초 투자논리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를 알게 되지요. 훌륭한 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과대평가 되었더라도 서둘러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주식이 강세장의 업종 주도주라면, 사실 그 주식을 강세장 내내 보유할 용기도 있어야 하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하면 그 거위를 팔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훌륭한 기업은, 특히 다른 마땅한 투자기회가 없어 현금이 대안일 상황에서는 설불리 매도하면 안 됩니다. 훨씬 좋은 투자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혹은 그 주식이 너무 터무니 없이 과대평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훌륭한 기업의 경우,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 주가를 적정가격으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투자할 것인가?’에 관해 존 템플턴은 “투자할 최고의 시점은 돈이 있을 때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임을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열쇠는 양질의 성장하는 기업을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매수해서 오래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리 명거가 말한 것처럼, “큰돈은 사고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 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사고가 유연해야 하며, 크거나 적은 손실을 보고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어려운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에 감정적으로 얹매이지 말고,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초해 결정해야 합니다. 손실은 침착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나아지겠지 하는 단순한 희망 속에 편더멘델이 악화되고 있는 주식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그 주식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주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다음의 급격한 시장조정기에 패닉에 빠져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의 서울성전 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도록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미경 권사

:: To Be Succeeded ::

하나님의 에이스(Ace)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후 큰 아이가 며칠간 아파 조퇴까지 했다. 이유는 교내 체육 강사님이 지도하시는 방과 후 배드민턴 훈련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강사님은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큰 아이를 눈여겨보셨고, 에이스 선수로 키워낼 목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임한 아이는 자기보다 잘하던 아이들을 하나하나 제치더니 결국 부동의 에이스 자리에 올랐고, 팀 주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님은 이 아이를 대표로 인정하셨다. 훈련 조교 역할까지 감당하던 아이는, 훈련을 몇 달 앞두고는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 중에 네가 제일이다.”라는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 학년 초의 눈물과 근심은 기쁨과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장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나부터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내 영·혼·육부터 기름지고 강건하게 하여 나아가 남에게 주고 살라는 뜻이다. 뿌리를 깊게 내려 열매를 맺어 그 그늘에 많은 이들이 쉬게 하고 열매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라는 목사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희생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전 세계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처럼 말이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희생과 눈물이 없이 단 열매를 딸 수 없다. 골짜기 없는 산등성이가 없듯,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과 조건에 처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내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열두 자파의 조상이 된 야곱, 출애굽의 대역사 이전에 앞서 보내신 자로 쓰임 받은 요셉, 모세 등등…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복하여 거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에이스 선수들이 되었다.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보자!’ 올해 교단의 슬로건이 우리도 하나님의 에이스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임을 믿고 나아갈 때, 나와 내가 선 모든 곳이 기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이국진 사보

전대미문의 은혜, 아름다운 마침표

구리교구의 장로님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함께 사역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었다. 전도든, 봉사든 언제나 앞장서셨고, 몸이 불편하셔도 교회의 필요 앞에서는 한 번도 물러섬이 없으셨다. 14년 전 뇌출혈로 큰 고비를 넘기신 이후에도 가끔 쓰러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오뚝이처럼 다시 세워주셨다. 쓰러지기 사흘 전, 장로님은 배가 너무 아프다며 기도를 요청하셨다. 그러나 며칠 뒤 장로님은 쓰러지셨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소천하셨다.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것도 전대미문의 축복이다.” 쓰러지기 불과 사흘 전까지도 노방전도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전대미문의 축복이 아닌가.

장로님이 평소 자주 하시던 기도가 생

각난다. “앞면도 복 주시고, 옆면, 윗면, 뒷면도 복 주옵소서.” 그냥 습관처럼 하시던 기도였지만, 이번 일을 지나며 그 기도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다. 앞면의 복은 눈앞에서 경험하는 부귀영화의 복, 윗면의 복은 천국의 구원, 밑면의 복은 숨 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에 남은 것은 ‘뒷면의 복’이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은 뜻을 품고 계시며, 그 안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게 사는 것만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다. 부르시는 순간까지 충성된 삶을 사신 장로님처럼 다가오는 2026년, 더욱 힘 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자 다짐한다.

문천명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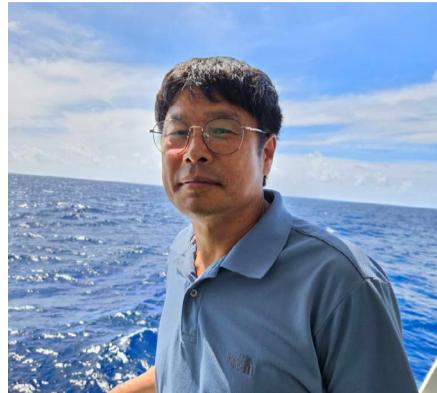
:: 소망의 언덕 ::

보이지 않는 축복을 헤아리다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2025년, 믿음의 결산은 어떠한가?” 일기장과 기도 노트를 펼쳐보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부터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여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노량진 기도회가 세워지면서 새벽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록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제 신앙의 호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12월 9일, 서울성전 부지 계약이라는 큰 응답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공동체가 함께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쉬움이 전혀 없었던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 내내 간절히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은, 해가 저물도록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열흘이 남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결산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불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한번 말씀하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형태’는 달랐을지도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매듭짓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믿음이란,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축복의 씨앗은 이미 심겼다고 믿기에 우리는 실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신뢰함으로 다음 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신 축복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승 목사

제가 서 있는 남태평양을 기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예수중심교단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고 있는 문경연입니다.

참기를 장에 참치 뱃살 사시미를 먹으니 맛은 좋은데, 홀로 송년과 신년을 맞는 밤이 조금은 쓸쓸했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넓은 망망대해에도 2026년 새해는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중심교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저 위대한 신앙 고백들로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설교도 없어 영적으로 메마르고 삭막한 망망대해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으며, 총회장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살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을 매일

틀어 놓고 기도하는데 방언기도 하다가, 찬양하다가, 거울 보고 귀신 쫓다가, 손뼉 치고 춤을 추다 보면 금방 2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원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실로암, 갈릴리 해변에서' 등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찬양도우미들 목소리마저 천사들의 목소리로 들리네요.

승선하기 전 육지에서 7시간씩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가 목포를 한 20년 정도 떠나 살았었는데, 목포 근교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총회장 목사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총회장으로 사형선고 받아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받고 깨끗이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교단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다시 보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으로 오시라고 했더니, 95% 결단은 셨지만 어떤 꿈을 꾸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꾸신 꿈보다 내 기도가 더 강합니다."라고 큰소리치고 와서는 정말이지 목이 부서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부르짖었는데, 3주도 안 돼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예전 같이 보석

처럼 아름다운 빛을 빛하고 계신답니다. 투명한다고 해서 고기가 다 잡히는 게 아니랍니다. 투명하면서부터 고기들이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20%~30% 정도가 탈출해버리고, 또 가두어 놨어도 20%~30%가 탈출해버립니다. 고기들이 탈출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칠 팬 와이어를 조이는 30분 동안에 200m 그물 아래로 탈출해버리기도 하고, 어떨 팬 본선 아래로 도망가 버리곤 해서 본선 쪽에서는 소형선 2척이 하얀 스크루 물보라를 일으켜 선회해야 하고, 해머로 본선을 두들겨 소음 때문에 어군이 본선 쪽으로 못 오게 해야 하고, 파란색 물감 주머니를 던져서 고기들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탈출을 방지해야 하는 등, 사투를 벌여야 고기가 잡혀 준답니다.

2026년, 벌써 제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황으로 한 달에 300~400톤밖에 못 잡은 배들이 태반입니다. 같이 조업하는 선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4일 만에 대어(655톤)를 잡는 동안에 단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선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박은 돌고래가 물고 온 고기가 30톤 예상했었는데 160톤이나 되었고, 오늘 잡은 고기도 30톤 예상했는데 100톤을 어획했습니다. 평생 이 직업에만 종사하는 자들의 예상이 빗나갈리 없는데, 예상을 깨고 훨씬 많은 고기가 어획된 걸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목포 삼학도에 어선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데,

만일 그런 배들에다가 참치 100톤을 선적한다면 무거워 전복되어 벼릴 정도의 양이니, 지금 저에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선박뿐 아니라 대만, 중국, 필리핀 선박들까지 우리 배가 대어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잡았다면 누가 기적이라 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만선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헉! 그렇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카톡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대어가 잡히도록 기도해주세요 ㅎㅎ.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단언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기도를 잊은 자는 다 잊은 자다', 송구영신 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6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남태평양에서도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태평양에서 문경연 피택 장로

돈을 좋아하는 크리스천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현금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평생 저에게 필요한 돈보다 갑절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계신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곳에,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저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굴리고 불리는 쪽에는 일자무식이었던 저는 주식 투자란 돈을 잊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 여겼고, 사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도 몰라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전부 투기꾼인 줄 알았죠. 책이나 영화, 전시회 얘기하는 걸 좋아했고, '어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같은 얘기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노동으로 번 돈만이 가치 있고, 그 돈을 잘 저축하는 것만이 돈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돈을 밝히는 건 어쩐지 속물 같다고, 크리스천이라면 돈에 관해 좀 어수룩하고, 초연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2021년,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섭게 집값이 오르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삶이 떨릴 정도로요. 열심히 저축하면 언젠가 서울에 내 집 하나쯤은 마

련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 사이 집값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앞으로 어떤 해야 하나 막막했고 눈물까지 났습니다. 무기력하게 몇 주를 보내다 결심했어요. '지금이라도 돈 공부를 하자!' 2022년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매달 부동산 강의를 들으며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입장하러 다녔고, 자투리 시간까지 긁어모아 경제 도서를 읽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았고, 지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죠.

책 <보도새끼의 돈>은 말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돈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 문제라는 먹구름이 인생에 끼어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다스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돈에 대해 당신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돈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한인 기업 최초로 글로벌 외식 그룹을 운영하는 김승호 회장은 돈을 살아있는 인

격체처럼 대한다고 하죠. 돈에도 감정이 있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불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다가가지 않는다고요. 그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부잣집 대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죠. 나사로의 신앙심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사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따듯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년까지 풍요롭게 살아간 이삭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수산나가 되고 싶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마을에 들를 때마다 편히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엘리사의 방을 따로 마련할 수 있었던 부유한 수넴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신은혜

내 동반자

생명의 약동과
성장의 발판을 가르쳐준
내 친구 봄이여
고맙소!

무한대 성장과
변화의 환경을 마련해준
내 친구 여름이여
고맙소!

결실의 행복과
이별의 아쉬움을 알게 해준
내 친구 가을이여
고맙소!

아름다운 열매 나눠주고
부활을 꿈꾸며 잠들게 해준
내 친구 겨울이여
참으로 고맙소!

인생 사계절
창조주 섭리를 깨닫게 해준
참 좋은 내 친구
사계절 고맙소!
정말 고맙소!

-봉우